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세계 184개국의 5000개의 단체에 속한

503명이상의 지구시민과 더불어

<리얼리미터>

<블루프린트 지구 함께 나누는 행복> 라는 주제로

제32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부터 이후 다섯대까지

차 없는 이 지구에서

<하늘의 바람> <땅의 바람> <사람의 바람>을 통해

풍요로운 풍요, 심플이웃, GAIA풍요이 행복하게

재향농 마을을, 진흙피마미스, 자른거 퍼레이드,

한국의 땅이 공동으로 만들고는 땅의 퍼레이드가 개최되고

그리고

Date

Energy, 물, 녹색상품, 건강한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친환경'의 판매장 을
운영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가치관의 추구 확대를 이룰

지구를 보듬어 안는

지구를 바꾸어 치해하고

내일부터의 우리의 삶에서

친환경이 있는 삶을 서로 함께 실천해나갑니다.

2002년도, 주연인

우리 환경운동의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가려워 이야기 꼭 전해 아바.

세계의 603명의 중구메이아들이 열광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

환경적인 우리나라의 자국을 국제를
환경적인으로 하는 정책적으로 성공 시켜야 하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강이다.

최근 오는 8월 26일에서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Rio+10이라 불리는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아파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다루어질.

바라기

오늘 여기에 지내 ^를 함께 한
한평생의 우리 모두에게

이 지주인 ^후에 ^한평생이
2002 (3) 이 ^무리 ^로 ^공재 ^의 ^가장 ^의 ^내
^기원 ^한 ^내

평생이 지내, ^한 ^서로 ^영조 ^의 ^가
다양한 ^한 ^내.

제32주 지주인 ^한평생 ^의 ^가

이렇게 ^한 ^내 ^한 ^내 ^한 ^내

정적 ^한 ^내 ^한 ^내

추진 ^한 ^내 ^한 ^내 ^한 ^내 ^한 ^내 ^한 ^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법이 있는
지구의 날 한국위원회 운영위원들 그리고

여기에 지구를 위하여
이반이 ~~장영준~~ 장영준 ~~행위~~ 행위
~~장영준~~ 장영준 위원님, ~~장영준~~ 장영준 위원님

심심한 장소에 두는 것

제32주년 지구의 날 기념식 행사
개회식 전에 합니다